

바다가 품은 예술, 경계 너머 오세아니아 기억을 만나다

전남도립미술관 '마나 모아나' 순회전...내년 1월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케브랑리박물관 공동 기획, 유물 171점·현대작품 8점 선배
'물의 영토'·'삶이 깃든 터전'·'세대를 잇는 시간'·'섬, 그리고 사람들' 4개 주제

'마나 모아나(Mana Moana)'.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 그리고 경계 없는 거대한 바다를 뜻하는 폴리네시아어다.

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경외 그리고 바다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오세아니아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섬은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자 신성과 예술이 태어난 근원이었다.

항해와 의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준다.

바다 건너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던 오세아니아인의 항해가 전남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내년 1월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 '마나 모아나 -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

물관이 소장한 18-20세기 오세아니아 유물들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다.

케브랑리-자크시라크박물관은 대영박물관, 스미소니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함께 세계 4대 인류학·민속학 박물관으로 꼽힌다.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비서구 세계의 예술과 문화유산 약 37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대표 국립미술관이기도 하다.

전시는 이러한 세계적인 박물관 주요 컬렉션을 바탕으로 오세아니아의 독창적 예술과 문화를 조망해본다.

유물 171점을 비롯해 현대 오세아니아 작가들의 작품 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네 개 주제로 구성된다.

먼저 '물의 영토'를 주제로 하는 1부에선 바다에 대한 오세아니아인의 인식을 다룬다. 카누와



국 제도의 타파(나무껍질로 만든 직물)

벳머리 조각상, 섬을 형상화한 진열장 등을 통해 항해와 정착의 체험을 공간적으로 전달한다.

2부 '삶이 깃든 터전'에서는 공동체 중심 세계관을 탐구해본다. 멜라네시아 유물을 중심으로 조상 숭배, 신성한 공간, 권력과 교환 의례를 조



왼쪽부터 조상을 상징하는 지붕 꼭대기 장식, 카누 벳머리 조각상 '응구주응구주', 카누 벳머리 조각 '도가이'

망한다.

3부 '세대를 잇는 시간'은 폴리네시아 지역 신화와 조상 숭배, 마나와 타푸(금기·신성의 규범) 등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억과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부는 오세아니아인의 삶의 태도와 철학을 전한다. '섬, 그리고 사람들'을 주제로 자개·깃털·고래 이빨 등 자연 재료로 만든 장신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바다를 경계가 아닌 연결의 길로 바라보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의미로 확장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연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성찰을 환기시킨다"며 "오세아니아가 전하는 이야기와 기억은 경계를 넘어선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함께 걷는 시간...세미뮤지컬 'Go Together'

낮선 출발선에서 시작해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마침내 무대 위 한 장면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세미뮤지컬 한 편으로 피어났다.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 마스터클래스 성과 발표회인 세미뮤지컬 'Go Together'가 지난 27일 오후 풍향문화관 하정웅아트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이번 발표회는 광주교대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숨결을 나누기 위해 추진한 RISE 사업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무대에 오른 세미뮤지컬 'Go Together'는 처음의 떨림과 도전의 두려움, 서로에게 건넨 응원, 점차 또렷해진 꿈까지 학생들이 걸어온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향한 다짐을 무대 언어로 풀어낸 공연으로 노래와 춤, 연기를 통해 함께 성장해온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공연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영화·뮤지컬 명곡들을 엮어 구성됐다.

뮤지컬 '그리스(Grease)' 대표곡인 'Summer Nights'와 '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맘마미아'의 'Mamma Mia'와 'Dancing Queen',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 마스터클래스 성과 발표회 성료



'렌트(RENT)'의 'Seasons of Love' 군무와 합창이 무대를 채웠다.

공연에는 강미선·강성호·곽다은·기아인·김원비·김은빈·김지원·노서연·문수인·문현화·서보미·유소영·이소인·이지혜·임성균·이림자·정유진·지서예·최연수·한송운·홍서진 등 수강생들이 출연했다.

무대 연출을 맡은 유희성 광주교육대학교 특임교수는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무대에서 스스로 가능성을 확인하며, 문화예술이 교육의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들의 행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대상에 윤진학·임준형

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임원식·이하 광주예총)는 제31회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수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28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2025년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예술대상에는 광주미술협회 윤진학(미술협회 기획위원장)과 광주연극협회 임준형(극단터 대표)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광주무용협회 강선영(무용협회 이사), 광주국악협회 이효성(국악협회 감사), 광주문인협회 배순옥(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광주사진협회 유진석(사진협회 기록간사)에게 돌아갔다.

예술상 수상자로는 광주전남건축가회 강만호, 광주국악협회 양미숙, 광주무용협회 나은영, 광주문인협회 김형순, 광주미술협회 강동

권, 광주사진협회 김은경, 광주연극협회 최이노, 광주연예협회 김덕진, 광주음악협회 최한별이 선정됐다.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은 광주예총 회원 가운데 우수한 예술 창작과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예술인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새고려인마을,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새한국장애인문화 광주광역시협회 등 지역 사회단체 3곳에 각각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원식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과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